

생물 주권시대가 온다



李龍雲 | 환경관리연구소 회장
본회이사

요즘 숲이 우거지거나 강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 월등하게 가격이 높다. 아파트 안에서도 수백만, 수천만원씩 들여 작은 정원을 꾸미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생활 주변을 자연처럼 만들어 자연을 만끽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생활속의 자연환경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은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될지 모른다는 시각도 많다.

세계 각지에 뿌리내린 식물이나 서식하는 동물들이 미래에 인류를 질병에서 구원할 신약을 제공하는 터전이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난치병으로 알고 있는 암이나 에이즈도 야생식물이나 동물에서 추출한 물질로 정복될지 모르는 일이다. 이미 미국은 40년 전부터 국립암연구소를 주축으로 열대식물 7000종을 연구해 항암제나 에이즈 치료제 성분을 추출하고 있다.

지난 93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50종의 처방약 가운데 80%가 야생식물에서 얻은 물질을 합성한 것이다. 현재 미국 제약회사인 머크(Merck)사는 열대림에서 서식하는 50만종의 식물에서 10년 내에 25종의 신약을 개발한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독일 사람들은 버드나무에서 해열진통제인 아스피린을 얻었으며 은행나무

에서 혈액순환제인 징코플라보네를 캐냈다.

일본은 버섯에서 레차난이라는 물질을 추출해 암치료 보조제로 이미 시판하고 있다. 중국도 개똥쑥이라는 흔하디흔한 식물에서 말라리아 치료제와 오미자에서 간장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식물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개발만 되면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비싸다.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을 산다'는 주목나무에서 추출한 항암제인 텍솔(Texol)은 kg 당 1,200만 달러(144억 원)에 달할 정도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돈 많은 다국적 제약사들은 지금도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아마존강과 같은 지역에 수많은 전문가들을 파견하는 경쟁을 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지구 생물의 중요성에 눈이 떠졌지만 생물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생물주권주의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일제시대에 일본학자들은 우리 식물들을 무더기로 반출해 갔다. 우리 고유종인 미스킵나무는 미국으로 건너가 개량돼 비싼 값에 다시 수입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정부도 본격적으로 토종생물 지키기에 나설 모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에

사는 생물종(種)은 2만 9,916종에 불과하지만 일본에는 무려 9만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이처럼 서식 생물종이 차이가 나는데는 정부가 우리 생물종을 관리하는데 한몫 했다는 자성도 포함돼 있다.

게다가 생물종에 대한 학술적인 조사가 선진국보다 수백~수십년 뒤진 사이에 많은 생물의 주권이 외국으로 넘어갔다.

환경부는 뒤늦게 2014년까지 1차로 3만 종의 자생 생물을 조사하고 정보를 집대성하는 한국 생물지(生物誌) 발간 사업을 시작한다. 우리 나라는 자원은 풍부한데 분류는 후진성을 못 면한 생물자원 후진국이다.

추정치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2만 9,916종만 확인돼 있는 것은 생물 분류학을 뒤늦게 시작한 영향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1910년대 이전부터 최근까지 한반도에만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고유 생물 2,254종 중 국내 학자에 의한 확인된 종은 1,133종이고 외국인에 의해 확인된 종은 1,121종이다. 우리의 생물종이 주로 외국인에 의해 호적을 찾은 셈이다.

전체 생물 종수는 한국은 2만 9,916종, 영국은 8만 8,000종이다. 일본은 포유류 200종에 전체 생물 9만종이고 독일도 포유류는 79종, 전체 생물종은 7만 3,000종이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경우 포유류는 많이 확인됐는데 전체 생물종이 적은 것은 곤충 등 대부분의 서식 자체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다양한 생물종의 존재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생물주권시대에 생물종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연환경을 지켜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할 토대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 나라에서 신약으로 태어나는데 기여할지 모르는 나무나 식물들은 주택지로, 공단으로, 도로로 뭉개지고 있는 현실이 그래서 안타깝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동식물이 1만 1,000여종에 이른다. 지구상의 생물이 사라진다는 사실은 우리를 질병에서 구할 신약이 사라진다는 말과도 같다. 우리가 환경을 아끼고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환경을 버리면 환경은 오염으로 보복한다는 사실을 새길 때다.

▣ 약력

- 한국자연공원협회 이사
- 환경관리연구소 회장
- 첨단환경기술 발행인

